

제44회 정기포럼

-행정자치부민간협력지원사업-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 운동

- 일시 : 2004년 12월 17일 (금)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러텍 사장)

박현경 (강원도청보건복지 여성국장)

설계현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 (불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오시영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헌장 2

발제

노인과 자원봉사

..... 3

김동배 (연세대학교 교수)

지정토론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25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

지정토론2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 31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지정토론3

노인과 자원봉사

..... 33

임춘식 (한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4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

..... 39

김명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개회사 : 이제훈(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14:20~16:00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 제 :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 발 제 자 : 김동배(연세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박수천(질병관리본부 국장)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임춘식(한남대학교 교수)
 김명제(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

16:00~16:30 전체토의 및 폐회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발제

노인과 자원봉사

김 동 배 <연세대학교 교수>

노인과 자원봉사

김 동 배
연세대학교 교수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노인이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고, 동시에 노인 유희인력을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이다. 특히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노년계층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 집단여가선용의 중요한 영역이며,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이 사회적 주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노인자원봉사의 의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외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집단 여가선용으로서의 노인자원봉사

자원봉사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며, 그런 경우에 그 사회적 의미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었을 때 여가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여가선용을 계획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여가선용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갖는 의미 있는 노인단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집단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① 집단 구성원과 동반자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운다.
- ② 독특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통용되는 노인 하위문화권에 소속됨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 ③ 타인과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받는다.
- ④ 집단심리를 이용하여 혼자서는 무력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 ⑤ 노인집단은 지역의 여타 사회집단 및 행정관서와 관계하면서 지역사회 노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집단 여가활동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오락·취미 활동이고, 둘째는 학습활동이고, 셋째는 봉사활동이다. 때때로 이 세 가지 활동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한 활동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배우는 모임에서 친목을 위해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집단 여가활동은 대체로 오락·취미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과거 사랑방으로부터 유래된 노인정 중심의 여가활동과 최근 확대·발전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이 학습이나 봉사 활동보다는 우선 오락·취미 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곳에서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원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비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란 학습하고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가선용의 방법, 특히 조직적인 집단 여가활동으로서 최근 사회적인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상부상조의 정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가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 자신에게 훌륭한 여가선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노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활동이다.

2. 노인자원봉사와 사회통합

노인문제에서 한 중요한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이란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와 가족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사회통합에는 2개 요소가 있다. 첫째는 그가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적절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가족 안에서 자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과 친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2개 요소는 퇴직 이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여생을 보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Rein & Salzman, 1995).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그가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하다(Kelly, 1992).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들이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타인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연령은 짧아지는 상황에서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좋은 응답이며, 퇴직이 꼭 생산적 활동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노인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건전한 생활과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Lawson, 1998). 노인자원봉사는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젊은이를 지도·선도하고 공익사업에 유희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주류에 통합되어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노인자원봉사는 적극 개발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Ellis와 Velten(1998)은 최적(最適)의 삶(optimal living)을 위한 20개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너 자신을 헌신하라”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일에 정열적으로 몰두해 있을 때, 특히 그 일이 창의적인 일일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자원봉사와 같이 우리에게 흥미 있는 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최적의 삶이다.

노인자원봉사가 노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이유는 노인자원봉사의 기본적 특성 때문이다. 노인자원봉사의 기본적 특성으로는 다음 4가지가 제시된다(동경볼런티어센터, 1999).

첫째, 노인자원봉사는 쌍방향성이 있다.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노인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행하는 측과 받는 측의 상하관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 ‘줌’으로써 받는 것이며,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나 즐거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는 쌍방향성을 가진 행위이다.

둘째, 노인자원봉사는 양면성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오랜 일생을 생각하면 ‘행하다’와 ‘받다’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지금은 행하지만 언젠가는 받는 측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받으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노인자원봉사는 치료성이 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봉사활동 하는 개인의 심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의 심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치료성의 효과가 있다.

넷째, 노인자원봉사는 자조성(自助性)이 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들은 집단을 만들어 문제해결을 위한 자조적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자조집단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조집단 활동은 노인운동 차원에서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의 사회통합에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에는 노인에 대한 의식교육과 기술훈련에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위축되고 소심해진 노인심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특별히 더 필요하고,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맞게 봉사영역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과는 달리 노인의 경우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학력, 소득, 과거의 직업, 사회적 위세도, 건강, 가족관계)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취향이 대단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통합이 실현되면 사회전체의 통합도 촉진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자원봉사는 봉사활동(volunteer activities)만이 아니라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도 이해된다. 원래 봉사학습이란 개념은 90년대 초 미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생들에게 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봉사학습이란 “학생들이 조직적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학습과목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얻고 시민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기회를 갖는 학점이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Bringle & Hatcher, 1996; Gibboney, 1996).

봉사학습의 기본 개념은 학습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봉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연결시

키는 것이다. 봉사학습은 청소년에게 잘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학습적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넓은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하는 청소년들은 현실 사회 속에서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은퇴기에 처해 있는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보다 여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봉사영역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마지막 작업을 시작할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 직업이든 취미활동이든 젊을 때부터 관여해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 재능을 사회적 유산으로 승화시켜 후대에게 상속을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노인의 봉사학습은 공식학습(formal learning)과 비공식학습(informal learn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식학습은 봉사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이 습득하는 것이고, 비공식학습은 봉사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학습, 즉 다양한 가치관과 접하면서 도전을 받고, 신념과 용기와 자립심을 배양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통찰력과 헌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일어나기도 한다 (Elderhostel, 1998).

노인자원봉사자에게 봉사학습이 일어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봉사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다. 봉사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면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봉사활동 중 일정한 시간에 혹은 봉사활동이 종료한 뒤에 그동안 봉사활동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대화하고, 글을 씀으로 그들의 봉사경험을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더 넓은 삶의 경험으로 승화시킨다.

노인자원봉사의 구성 형태로는 크게 2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이 자원(봉사)기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뜻을 같이 하는 노인들끼리 노인이 주구성원이 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때로 전자의 형태로 출발하여 적절한 시기에 후자의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는 노인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체로 사회적 목적을 갖는 단체 활동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3.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의 현황

노인자원봉사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일반인의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최근 성인인구의 대략 15%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가옥, 1996; 이강현·김성경, 1999),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국적 통계는 없다. 통계청(1991)의 전국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 3.8%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정년퇴임한 교원 87명의 경우 11.5%가 현재 자원봉사활동 중이라고 응답하였고(김중대, 1998), 대구시민 1,000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5.9%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대구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1999)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관해서는 조사마다 다른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대략 15%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자원봉사는 대략 5%로 추산할 수 있겠다.

그런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함에 있어서, 즉 노인의 어떤 사회적 활동이 과연 자원봉사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는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다. 아마 이러한 모호성이 노인자원봉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자원봉사란 그 특성상 자율성, 무보수성, 지속성, 체계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노인의 경우 그러한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사회활동을 전부 포함하여 사회봉사 혹은 자원봉사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유희노인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①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②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 ③ 공원관리 봉사활동, ④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⑤ 할아버지 선생님 봉사활동 등 5개 부문에 걸쳐 11만 명 이상의 노인에게 일당을 주고 봉사활동에 참여케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1995). 1995년부터는 환경감시 할아버지봉사대와 자율방범 할아버지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수 백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일당을 받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사회활동은 자원봉사의 측면보다는 소득보장의 측면이 강하며, 자원봉사는 창의성이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겠다.

13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전국 각 지회 또는 노인정 단위로 폐품수집, 청소년 선도사업, 도덕·윤리 교육 등을 전개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대한노인회, 1996) 대부분 이러한 활동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과성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노인자원봉사는 그 개인적·사회적 의의가 막중함으로 가급적 많은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노인의 모든 사회활동을 자원봉사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원봉사 고유의 특성을 갖는 활동만을 자원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자원봉사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즉, 자원봉사 관리과정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고, 개인의 능력과 기호에 맞는 영역에 배치되어,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필요시 재교육의 기회도 갖고, 일정기한이 지난 후 평가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발전을 시도하는, 이른바 자원봉사 관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활동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향후 노인의 자원봉사가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 아직 미약한 편이고, 대신 기존의 각종 단체에 소수의 뜻있는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의료·문화·공공시설 등에서 청장년과 함께, 혹은 어떤 조직과 관련 없이 노인 개인 차원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곳이므로 이곳에는 비교적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우리 고장 가꾸기 노인봉사단,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대한민국 은빛나눔단,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은빛봉사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송파노인자원봉사대,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까치노인봉사대가 있다. 기타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평화노인봉사대, 수지침 봉사를 하는 새마을 봉사대, 부산의 실버 일본어 통번역 봉사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이금룡 외, 1999). 최근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노인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여가활동을 위해 조직된 노인단체들은 대체로 그 사업내용에 봉사활동을 포함시킨다. 단체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리고 역사가 길든 짧든 봉사활동은 언제나 주요사업의 우선순위에 꼽힌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단체이든 정부에서 후원하는 단체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특정한 단체의 특정한 봉사활동이 지속성을 갖고 발전되어 열매를 맺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칭송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동안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몇 개 있었으나 전문가의 안내와 지도를 받지 못하고,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만한 리더십도 미약했으며, 주위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및 물질적 지지도 받지 못했던 관계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기존의 봉사활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그 단체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주는’ 원로상(元老像)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 또 하나의 ‘받는’ 노인상(老人像)을 재연(再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좋은 일을 해보자는 막연한 뜻이 있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질 및 지적(知的) 자원의 확보, 기획과 전략 그리고 평가, 또한 지속적인 지지를 주는 동조자와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인봉사단체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원로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팔을 걷어 부치고 어깨에 띠를 두르고 봉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해당 봉사영역과 봉사요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는 일도 필요하다.

4. 외국 노인의 자원봉사 현황

여기에서는 외국노인의 자원봉사 실태를 서술함에 있어서 대상을 미국노인으로 국한하였다. 미국은 자원봉사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많은 영역 중 여기에서는 문화영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1) 자원봉사 지원체계

자원봉사에 관한 한 미국은 타국의 추월을 불허한다. 선진외국 여러 나라의 성인 자원봉사

자가 전 국민의 평균 20%-3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미국은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는 175,000개의 공식적인 자원봉사조직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원봉사조직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매주 평균 4-5시간 이상씩 무보수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O'Connell & O'Connell, 1988; Independent Sector, 1996).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전문적인 것에서부터 비전문적인 것에까지, 그리고 공공분야에서부터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집없는 사람을 돕고,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며, 청소년센터와 양로원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각종 사회단체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과 캠페인을 주도하고 선거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까지 실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유급종사원으로 대치한다면, 일년에 적어도 2,015억불이 소요될 것이다(Payton, 1988).

미국의 자원봉사는 미국인의 철저한 개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고 자신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자원봉사는 이타주의에 의해 남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시민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상이 오랜 전통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반시민에 깊이 뿌리박힌 이러한 자원봉사정신은 정부의 강력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절반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합한다면 전 국민이 다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미국은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불리어 질만 하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를 주장하고 후원하는 제도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다차원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공공부문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제창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시발점으로 하여, 존슨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실현을 위한 빈곤퇴치 자원봉사단(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닉슨 행정부의 ACTION廳,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 국내판 평화봉사단인 미국봉사단(Americorps),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 및 지역사회 단위의 학생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봉사학습 프로그램(Learn & Serve America), 노인의 재능과 기술을 동원해 지역사회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국립노인봉사단(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NSSC)이 있다.

NSSC는 장애아동 및 비행청소년을 위해 조부모의 역할을 하는 위탁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인동반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그리고 "평생의 경험을 나누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자·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Retired &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조부모 프로그램과 노인동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은 일정한 임금을 받고, 은퇴자·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무보수이지만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연방정부 지원과 민간의 후원금이 대략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은퇴자·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이에 참여하

는 노인은 대략 50만 명이고, 그들은 매년 8천만시간의 자원봉사를 하고, 그 노력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불에 해당된다(Carroll, 1994). 그들은 학교에서 어린이를 지도하고 요양원에서 동료노인을 돕기도 하고, 병원과 교도소를 방문하며, 문화·예술기관의 안내와 조사 그리고 공원설계에 참여하는 등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1970년 닉슨 행정부의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Center for Voluntary Action)가 전국 차원에서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고, 역대 행정부가 이를 확대·개편하여, 부시 행정부에서는 “수많은 촛불을 어두운 곳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촛불재단은 정부와 민간의 재정지원을 받아 500여개의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 센터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방정부, 기업, 학교, 종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술 및 자원을 제공한다.

촛불재단은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과 함께 매년 4월 역대 美대통령들을 초청하여 ‘자원봉사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 재단은 또한 지역사회 공동모금(United Way)과 공동으로 개발한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인 Volunteer Net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기관만이 아니라 사업기관으로서의 직접 봉사프로그램으로 가족봉사 프로그램(Family Matters), 청소년 자원봉사지도자 프로그램(Youth Engaged in Service Ambassador), 그리고 기업 아우트리치 프로그램(Business Outreach Program) 등을 수행하고 있다(성민선, 1997).

촛불재단이 갖고 있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에 대한 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Seniors in Service to Seniors)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노인들이 동료노인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이 훈련을 받고 활동하는 노인들을 ‘노인대사(Senior Ambassadors)’라 부른다.

이상 연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지원체계 외에, 주·군·시 단위 지방자치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2) 노인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에 관한 오랜 전통이 있는 미국에서도 사실 자원봉사의 주된 자원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의 또 다른 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인자원봉사는 개인적으로는 노인봉사자 자신에게 유용성과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사회적으로는 이웃과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사회 및 복지단체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책임성이 강하며, 특히 봉사가 요구되는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Carroll, 1994).

1991년 美 전국조사인 Commonwealth Fund Productive Aging Survey에 의하면, 55세 이

상 노년층 인구의 26.1%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00만 명에 해당된다. 과거에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6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인다. 80대 후반에서도 10%에 육박하는 비율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Caro & Bass, 1995). 또 다른 연구(Chambre, 1993)에서는 연령층을 세분하여 60-64세 42%, 65-69세 46%, 70-74세 47%, 75-79세 39%였고 80세 이상의 경우도 27%나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는 미국인은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연령은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미국노인들은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4명에 한 명 꼴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Commonwealth Fund Productive Aging Survey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자세히 보면 ① 교회 등 종교기관(49%), ② 병원, 노인요양원 혹은 호스피스(12%), ③ Kiwanis, Lions, Rotary 등 친목·봉사클럽(9%) 등이었고,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의 참여(3%)는 6위를 보였다. 노인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으며, 건강하고 종교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5개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65세 이상 노인 각각 약 900명씩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있어서 미국은 타국에 비해 단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타국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에 대한 국제 비교

활동내용	활동비율	가끔 혹은 주 10시간 미만	자주 혹은 주 11시간 이상
노동			
미국	13%	79%	21%
영국	5	54	46
일본	29	82	18
독일	4	28	72
캐나다	6	58	42
자원봉사			
미국	34	10	90
영국	12	10	90
일본	12	6	94
독일	13	3	97
캐나다	28	13	87
아이보기			
미국	31	19	81
영국	19	13	87
일본	9	26	74
독일	24	18	82
캐나다	22	15	85
이웃과 상부상조			
미국	83	46	37
영국	86	48	38
일본	86	36	50
독일	85	37	47
캐나다	80	43	37

3) 문화재보존 노인자원봉사의 사례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많은 영역 중 문화영역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는 노인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심리’와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문화 부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통 ‘문화자원봉사자’라 부르는데, 이는 집 없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혹은 병든 사람들을 돕는 ‘서비스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숫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정신(soul)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Carroll, 1994). 특히 박물관 자원봉사자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봉사한다는 것 이외에도 한 민족이나 국가, 나아가 인류의 뿌리를 간직하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는 데 관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당 받는다.

- 안내센터 업무
- 그룹관람 안내 및 그룹지도
- 외국어 및 수화 안내
- 관람자에 대한 주의 및 계도
- 기념품 가게 업무
- 다가오는 전시회에 관한 배경 탐구
- 전시장 디자인; 전시물 및 악세사리 정리
- 전시회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의 구매 및 전달
- 소장품 정리
- 모금활동 또는 모금을 위한 행사 준비
-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 뉴스레터 및 홍보출판물 제작
- 사회교육 프로그램 기획, 진행, 보조

박물관은 대단히 넓은 의미로 규정되지만 박물관은 결국 문화재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미국 노인자원봉사활동 중 박물관자원봉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동배·원영희·이금룡, 2000).

(1) 국립공원관리국의 공원자원봉사 프로그램

국립공원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은 내무성(Dept. of Interior) 산하 기관으로서 전국 350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국립공원관리국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함으로써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자원봉사(Volunteer in Parks: V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85,000명의 VIP봉사자들이 국립공원과 史蹟(historic sites)에서 1년에 약 300만 시간을 투자하며 봉사하고 있다. 이 중 약 1/3이 노인이다.

VIP 자원봉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4 영역에서 정규직원을 돕는다.

- ① 관람객 안내: 관람예약 접수, 관람객 안내, 전화문의 안내, 장애인 안내, 그룹관람 안내, 안내방송, 영화·비디오 상영 및 설명, 입장료 접수, 특별행사(특별전시회, 고고학주간 행사, 축제) 지원, 학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큐레이션(Curation): 고문서·유물정리, 카탈로그 작업, 소장품 청결유지, 조사·연구·발굴 작업 참여, 번역

- ③ 시설관리: 박물관 건물 내외부와 주위환경 보수 및 청결유지, 보안
- ④ 행정: 시설관리, 사무실 업무, 사무용품 구매, 컴퓨터 시스템 제작·활용, 홍보 팸플릿 제작, 사진

VIP 신청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국립공원 및 사적지에 자원봉사신청을 한다. 대부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받는다. 지역에 따라 때로 자원봉사와 internship을 병행하기도 한다.

VIP는 국립공원과 사적지마다 따로 조직해서 운영을 한다. 그 중의 한 예로, 스팀타운 자원봉사단(Steamtown Volunteer Association, Inc.)을 보도록 하자. Steamtown 공원은 1850~1950년까지의 美 간선철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1986년 Pennsylvania 州 Scranton市에 옛날의 驛舍 몇 개를 개조하여 설립되었다. 이 공원에는 과거 증기기관차의 전성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2시간 반 동안 장장 26 miles의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하였다. 또한 증기기관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20분짜리 비디오를 상영하는 250석의 극장과 다양한 증기기관차의 모델을 전시하는 2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하나에는 다양한 기차모형을 증기기관공학의 발전 측면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에는 철도역사 박물관으로서 철도건설과 관련된 사람들과 기차 여행하는 승객들의 사진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스팀타운 자원봉사단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130명의 회원이 관람객에게 보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을 갖게 하게 위해 여러 가지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명의 유급직원이 해야 할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봉사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증기기관차 운행: 기관사, 화부, 기술자, 승무원의 절반은 자원봉사자; 유급직원의 다수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출발; 이 공원에는 연방 철도청의 공인된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철도승무원으로 취직
- ② 정비창: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수집되어 있는 100대 이상의 철도차량에 대한 청결 및 보수; 정비 업무를 위한 특별 훈련과정 참여가능
- ③ 관람객 안내: 극장과 박물관 안내 및 해설; 기차유람 시 동승 안내
- ④ 기념품 판매: 판매봉사; 특별행사시 매표; 특별행사 홍보
- ⑤ 특별행사: 국립공원주간 행사, 기차 박람회, 국경일 행사 등에 보조
- ⑥ 도서정리: 철도역사와 관련된 정보·자료의 정리 및 조사
- ⑦ 출판홍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월간 뉴스레터와 관련자 및 후원자들을 위한 계간 뉴스레터 제작; 관람객을 위한 홍보안내 팸플릿 제작

(2) 미국퇴직자협회의 자원봉사 재능은행 프로그램

미국퇴직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는 미국노인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서 약 4,000지회를 두고 50세 이상의 현직자 및 퇴직자 3,300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AARP의 각 지회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의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성취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 지원한다. AARP는 “봉사를 받지 말고, 봉사하자! (To serve, not be served!)”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음의 3대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① 지역사회에의 참여(Getting involved): 회원들은 그들의 경험, 전문성, 재능,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② 새로운 친구 사귀기(Making new friends): 같은 취미와 관심,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공통의 관심사를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
- ③ 차이 만들기(Making a difference): 노인복지문제를 포함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전개한다.

AARP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 재능은행(Volunteer Talent Bank)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다. VTB는 50세 이상의 신청자에게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자원봉사 안내 프로그램이다. VTB는 자원봉사 신청자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기관을 컴퓨터로 연결시킨다. 기관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일을 제시하고, 신청자는 본인의 관심, 기술, 시간 등을 제시해서 쌍방이 만족스러운 선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기관일 수도 있고, 전국 조직망을 갖춘 기관의 지역분회일 수도 있고, 혹은 AARP내 여러 가지 사업일 수도 있다. 노인 자원봉사자는 각 봉사영역에서 지배인, 자문가, 정책입안가 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직접 사회적 서비스에 종사할 수도 있으며, 혹은 캠페인 및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VTB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총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보존과 관련된 봉사는 예술·문화 영역에 속한다.

- ① 예술·문화 : 박물관, 미술공예, 공연예술
- ② 비즈니스 : 기업관리, 컴퓨터, 인사관리
- ③ 소비자 : 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 재무계획 지도
- ④ 교육 : 성인교육, 문맹퇴치, 개인교습
- ⑤ 환경 : 환경보호, 공원관리, 생태계 보호
- ⑥ 건강 : 보건제도개혁, 건강증진, 호스피스
- ⑦ 주택 : 공공주택 안내, 주거선택 상담
- ⑧ 법률 : 법원봉사, 법률지원서비스, 요양원 ombudsman
- ⑨ 입법 : 선거사무, 정책분석, 유권자 교육
- ⑩ 레크리에이션 : 캠핑/하이킹, 여행가이드, 그룹소풍
- ⑪ 안전 : 구급, 범죄예방, 노인운전 지도
- ⑫ 과학 : 컴퓨터 지도, 공학 지도, 수학/통계학 지도
- ⑬ 사회적/대인적 서비스 : 상담, 우애방문, 세무보고
- ⑭ 노동 :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 감시, 고용계획 지도, 퇴직계획 지도
- ⑮ 특별활동 : 은퇴교육자회 업무, 지역사회 활동, 홍보

(3) 노인학습여행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학습여행(Elderhostel)은 5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여행과 학습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사회통합 프로그램이다. Elderhostel은 2,000여개의 대학과 교육이 문화 기관과 연계하며 여행과 학습을 통해 生の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1975년에 시작된 Elderhostel은 매년 약 30만 명의 노인이 미국 국내외의 다양한 학습현장(대학, 회의장, 유스호스텔, YMCA, YWCA, 국립 및 주립공원, 박물관 등)에서 노후에 맞는 새로운 도전과 의미 있는 씨름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고 학습, 현장답사, 문화행사참가, 숙박비 등으로 300-400불의 등록비가 부과된다. 어떤 노인들은 Elderhostel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면서 대륙횡단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다른 노인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는 기관을 전국적으로 섭렵하면서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도 한다.

Elderhostel의 자원봉사 프로그램(Elderhostel Service Program)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에 도입되었다. 봉사활동 내용은 지역사회개발, 특수아동캠프, 영어교육, 주택개량사업, 校舍건축, 환경연구, 자원보호, 유적 발굴·보존, 박물관 큐레이션 등이다. 봉사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1주일 혹은 3-4주일이 소요되며, 참가비는 수 백 불에서 1,000불 이상 들기도 한다.

학습여행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모두 아시아권 여러 국가와도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장차 한국과도 관련을 맺어야 할 것이다. 해외 Elderhostel 프로그램은 노인을 통해 민간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외국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유적 발굴·보존 활동의 사례 몇 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산업박물관은 제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전쟁관련 유물을 비롯하여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물품과 기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소에는 여전히 80,000점의 진기한 유물과 고문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다. 우선 봉사자들은 전문직원을 도와 이것들을 분류·정리하는 일을 맡는다. 유물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고, 출처와 용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분류해서 카탈로그를 만든다. 이러한 일은 장래 이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과 학생들이 문화재를 공부하는 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이들은 몇 명이 한 팀이 되어 봉사활동을 한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유물관리기법을 배워 그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있는 박물관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또는 가공품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② 위스칸신주 죠지윌리엄스 대학 제네바 호수 캠퍼스 자원봉사 프로그램

위스칸신주 George Williams College의 Geneva Lake Campus는 YMCA를 창설한 George Williams 경을 기념하기 위해 창립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원래 1884년 YMCA 지도자와 자원봉사 회원들을 위한 여름훈련센터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아래 수많은 비영리단체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 왔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2개 반으로 나뉘어 진다.

a. 삼림보수 프로젝트

캠퍼스 근처에 있는 7 acres의 울창한 숲은 그동안 수련회나 야외환경 교육장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동물의 시체가 쌓이는 등 몹시 불결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봉사자들은 잡초와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이 숲에 필요식물인 아닌지를 구별하고, 외래종을 제거하고 재래종을 심고, 제거된 나무는 장작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고, 오솔길을 복구하는 일을 한다. 또한 동물의 시체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새와 동물들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은 이 사회에 다시 YMCA 정신을 부활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b. YMCA 박물관 유물정리 프로젝트

캠퍼스 안에 있는 YMCA 박물관창고에는 110년도 더 넘게 모아져 있는 YMCA 관련 고문서와 자료들 중 아직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이 자료들은 이 학교의 초기역사를 담고 있으며 YMCA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의 활동면모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또한 여름훈련센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규대학으로 발전했는가 하는 내용도 있다. 봉사자들은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카탈로그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물론 학생, 직원, 방문객을 위한 것인데, 이 작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은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전시하며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하게 된다.

5.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노인자원봉사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노인 유희인력의 미활용과 노인자원봉사 영역 개발의 필요

서양 속담에 “늙은 개는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없다”란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노인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경험의 지평을 넓힌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빗대는 말이다. 이 속담은 나이 든 근로자는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조직을 발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가급적 빨리 해고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좋은 빌미를 준다. 또한 이 속담은 나이 든 사람은 편히 그리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야지 무슨 힘이 남아 있다고 세상일에 간섭하느냐 하는 노인 무용론에 힘을 실어 준다. 그러나 이 속담이 얼마나 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사회인식을 오도하고 있는지를 수많은 노익장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Powell, 1998).

노인자원봉사는 노인 유희인력을 사회가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노인 자신도 보람을 찾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 활동성과 의식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그들의 재능과 경륜을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자원봉사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이들의 생각을 묶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전문가적 기술이 없다면 별 소용이 없다. 또한 아무리 전문가적 기술이 확보된다 한들 노인들이 자신이 이것을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노인집단 안에 스스로 지도력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그 활동은 얼마가지 못하여 축소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나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단체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노인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신문 방송에 소개도 되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비체계적이고 비정규적인 오락 활동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 어린이들에게 한문과 예절을 가르치거나 청소년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노인단체가 다소 있으나, 이는 소규모적이고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참여 노인의 만족도,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아직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의지와 능력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조직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인들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다면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여가선용의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도 제대로 된 학습과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노인이기 때문에 더 잘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회 모든 조직체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교육기관, 종교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노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참여의식 미약과 의식개혁의 필요

노인의 여가선용이나 사회활동에 관한 언급이 있을 때면 항상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나온다. 그러나 과연 후기산업화, 정보화의 시대에 노인의 경륜과 지혜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대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노인들이 꾸념과 사견(私見)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인의 경륜과 지혜는 사적인 수준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사회적 혹은 공적인 수준에서는 한계성을 갖는다. 사회에 대한 노인의 무력감은 아마 이런 제한성에

연유할지 모른다.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그 경계선을 뛰어 넘어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보여 진다. 자원봉사는 농경시대에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누렸던 세력을 현대에 회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우선 필요한 것은 노인의식의 개혁이다.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 관심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역만을 지키려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노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세상과 연결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웃과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체계를 점검하게 되며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삶은 조화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 경험, 경륜, 지식, 지혜는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귀한 자원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개인적인 취미나 오락으로 보내는 경향이 높다.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노인단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은 아직 낮은 편이다. 봉사활동이라고 해봐야 교통정리나 거리청소, 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위세도가 낮은 활동에 기력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제는 좀 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건강과 지식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노인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참여해야 하겠다. 자원봉사를 통한 헌신과 나눔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는 삶을 보상으로 준다. 자원봉사는 때로 직업이 줄 수 없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며, 생산적이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단한’ 노인에서 ‘열린’ 노인으로, ‘받는’ 노인에서 ‘주는’ 노인으로 변화해야 하겠다.

3) 사회적 지원의 미약과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

우리사회는 노인자원봉사라는 보고(寶庫)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의 잠재적 생산성을 활용하는 데 아직 충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자원봉사가 발전하려면 자원봉사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원봉사자들이 만족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태도와 자질을 올바르게 인도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먼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주저하게 되며, 또 자원봉사활동이 특수층의 사람만이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자선이나 구호행위 정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이대근, 1991).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일시적, 감상주의적, 영웅주의적 또는 자기만족을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참된 가치나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한 것도 자원봉사 발전의 한 장애요인이다(김동배·최재성·조학래, 1997).

사회 모든 조직체는 노인에게 자원봉사 하도록 요청할 뿐 만 아니라, 청장년과 같이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노인들끼리만하기를 원하는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일인지 아니면 처음 해 보는 일인지에 따라 적절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스럽고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이른바 자원봉사의 관리 원칙들이 노인들에게 더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나 기업재단, 혹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젝트에 노인자원봉사 관련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기관은 노인 신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을 노인자원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겠다. 정부는 노인자원봉사에 관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비 보조, 다양한 유급 봉사 영역의 개발, 전문 자원봉사 영역의 개발, 나아가 자원봉사와 관련된 상해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소득에 연연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약간의 임금을 제공하고 봉사처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김동배·원영희·이금룡(200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부.
- 김동배·최재성·조학래(1997), 전국자원봉사센터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김중대(1998), 노인복지연구, 1/2, 겨울호, 103-135.
- 대구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1999), 대구시민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 대한노인회(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상.
- 동경볼런티어센터 편(1999), 연장자 자원봉사조정자 매뉴얼(박태영·이재모 역), 대구광역시 노인종합 복지회관.
- 서울특별시(1995),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내부자료>.
- 성민선(1997), “주요국과 한국의 자원봉사 동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의 기초(자원봉사 프로그램 백과 ②).
- 이가옥(1996), “한국노인자원봉사의 현황과 과제,” 자원봉사와 노인의 역할, 제 2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성공회대학교, 4-49.
- 이강현·김성경(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 현황, 볼런티어 21.
- 이금룡 외(1999),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한국노인의 전화/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이대근(1991), “지역복지발전과 자원봉사 활용 방안,” 사회복지, 1, 147-163.
-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지표.
- Bringle, R. & J. Hatcher(1996), "Implementing Service Learning into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 221-239.
- Caro, F. G. & S. A. Bass(1995), "Increasing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S. A. Bass(ed.), *Older &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r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71-96.
- Carroll, A.(1994), *Golden Opportunities: A Volunteer Guide for Americans over 50*, Princeton, NY: Peterson's.
- Chambre, S.(1993), "Volunteerism by Elders: Pas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Gerontologist**, 33/2.
- Elderhostel(1998), *Elderhostel Service Programs*, Winter/Spring Issue No. 4, July.
- Ellis, A. & E. Velten(1998). *Optimal aging: Get over getting older*, Peru, IL: Open Court Publishing Co.
- Giboney, R.(1996), "Service Learning & Commitment to Community: Exploring the Implications to Honor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rocess 2 Years Later," *Nonprofit & Voluntary Sector Quarterly*, 25/4, 506-524.
- Kelly, J. R.(1992), *Activity and Aging*, Newbury Park, CA: SAGE.
- Lawson, D. M.(1998), *Volunteering: 101 Ways You Can Improve the World & Your Life*, San Diego, CA: ALTI Publishing.
- O'Connell, B. & A. B. O'Connell(1989), *Volunteers in Action*, New York, NY: Foundation Center.
- Payton, R. H.(1988), *Philanthropy: 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 New York, NY: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 Powell, D. H.(1998), *The Nine Myths of Aging: Maximizing the Quality of Later Life*, New York, NY: W. H. Freeman & Co.
- Rein, M. & H. Salzman(1995), "Social Integration, Participation & Exchange in Five Industrial Countries," in S. C. Bass(ed.), *Older &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r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237-262.



지정토론 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

1. 노인의 자원봉사 환경

-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함
 - 평균수명추이 : ('91)71.7세→('01)76.5세→('20)80.7세
 - 노년부양부담(65세 이상/15~64세) : ('90)7.4%→('04)12.1%→('20)21.3%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자원봉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노인 단독세대 비율 : ('90)25.8%→('95)36.6%→('00)44.9%
 - 노인(60세 이상)의 장래 살고 싶은 곳('02) : 자기집 77.2%, 자녀집 18.2%, 시설 등 4.6%
-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장기요양 필요성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원봉사에 의한 역할보완이 요구됨
 - 65세 이상 장애 출현율 : 65~69세 9.6%, 70세 이상 11.4%
 - 65세 이상 의료비 증가율('90→'03)은 전체의료비의 2배
 - 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
-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노인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노인의 자립의지가 요구되고 있음
 - 65세 이상('02)의 8.7%가 기초생활수급자(64세 이하는 2.3%)
 - 60세 이상 생활비(용돈)의 자녀·친척 의존도('02) : 40.1%
[60~64세 : 19.0%, 65~69세 34.4%, 70~79세 : 58.7%, 80세 이상 : 77.8%
 -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율 : ('90)26.1%→ ('02)30.7%→ ('03)28.7%

- 노인의 여가활용은 주로 개인 활동이고, 종교참여노인이 절반이상 이어서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60세 이상의 여가활용의향('02) : TV · 라디오 60.6%, 사교 13.5%, 여행 9.4%, 가족일 4.6%, 운동 4.5%, 바둑화투 2.8% 등
 - 65세 이상 종교 활동('03) : 63.2%(불교 52.3%, 기독교 31.4%, 천주교 12.2%)

- 노인은 자원봉사의 최대 수혜자임과 동시에 최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노인의 생활양식을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정립함으로써 노인이 자원봉사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함

2. 노인자원봉사의 실태와 정부활동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전 국민의 16.3%('02)로 '99년의 1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1.1%, 40대 34%, 30대 21.1%, 20대 23.9%이고, 직업별로는 주부 27.5%, 자영업 19.8%순이었음(볼런티어21,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 노인자원봉사자는 대략 5%로 추산(김동배, 2004.12.17)하고 있고 통계청(1999)은 60세 이상이 6.7%로 발표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2000)에 의하면 2004년도(12.13 현재) 인증자원봉사자 492,728명중 60세 이상이 4.2%, 50세 이상이면 7.5% 점유로 나타남
 - 전체 봉사자중 주부가 9.3%, 무직(퇴직자 포함)1.1%, 학생 20.9%를 점유하나 60세 이상은 그중 주부 19.1%, 무직 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무직 봉사자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39.8%, 주부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12.7%임
- 노인(65세 이상) 자원봉사활동 비율을 국제비교('91년)하면 미국34%, 영국12%, 일본 12%, 독일13%, 캐나다28%로서 높은 수준임
(김동민, 2004 재인용, 미 Commonwealth Fund Productive Aging Survey)
 - 일본의 자원봉사자는 50-60대가 60%('96)를 점유하고, 그중 노인이 절반을 넘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국고 759백만 원을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했으며, 자치단체는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봉사활동지원 등에 사용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예산으로 편성되어 짐

* 민간법인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가 전국 10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2005년 정기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초보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정부에 의한 노인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전제된 것이지만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의 기능이 필요함. 특히, 조직력이 미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임
- 자치단체별로 지역자원봉사센터(250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기관이 분야별·대상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특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예를 들어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노년자원봉사회 등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 이는, 법령·예산·행정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자원봉사 매개 그룹의 육성

- 자원봉사가 비전문적·일시적인 경우에는 개인별 참여도 무방하겠지만 전문적·반복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원봉사 그룹은 직장·지역·학교·종교·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고 조직화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함
- 이는,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공공영역에서 맡아 주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매개그룹에게 자금·장비·시설 등을 후원하는 사회공헌기업이나 종교기관, 공익법인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임
- *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부분 이를 후원하고 있거나 후원의사를 가지고 있음

* 이상의 통계는 통계청 자료임('04.10)

○ 「인정과 보상」 체계의 도입

- 자원봉사의 가치는 무보수성에 있음. 그렇다고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자원봉사 의사가 위축 될 수밖에 없음. 자원봉사 동기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게 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01년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음.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은 그런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되고 있음.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미약한 가운데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자원봉사마일리지시간은 '01년 120만 시간, '02년 254만 시간, '03년 389만 시간, '04년 (12.13 현재) 439만 시간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음


* 자원봉사인증센터 2,208개소, 교육이수 4,893회(보수교육포함) 3,656명

- 나아가, 인증결과를 통해 자원봉사들이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고(高)실적 보유자에 대한 영예, 이들에 대한 공공시설 무료 및 우선이용, 판매유통 가맹점의 할인혜택, 자기 마일리지의 환급사용 등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얼마든지 있음.

○ 노인의 자원봉사 의식개선 선행 긴요

- 지금 노인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며 능력도 있으나 사회에서 조기 퇴출당해 있는 경우가 많음. 과소평가되고 사회로부터 밀려나 소비적인 생활이나 이기적인 자기 소일로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함
- 노인을 자원화 하기 위해 계몽과 교육이 젊어서부터 있어야 하고, 늦어도 장년기에는 실시되어야 함. 이것을 「국민복지교육」이라고 할 것임.
- 노인이 효도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도 필요함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함. 그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고령사회의 부담을 차세대가 전부 부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老老」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

고령사회의 재정부담·요양부담·저출산부담·소외 등으로부터 노인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함




지정토론 2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임 춘 식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지정토론 3

노인과 자원봉사

임 춘 식

<한남대학교 교수>

노인과 자원봉사

임 춘 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의 원고에 대한 지적과 질문보다는 열악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착화, 제도화를 위한 의미에서 발표자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그 동안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몇 년 동안 많은 연구 활동과 그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여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해 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 결과물으로써는 발표 논문의 [참고 문헌] 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오늘 발표 논문에서도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대한 과제를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물은 예전이나 지금에도 큰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표자는 평소에 외국의 자원봉사 실태에 대해 국내에 많이 소개하여 좋은 교훈의 터전을 제시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발표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15% 가량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약 5%는 노인자원봉사자가 아닐까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자원봉사자의 30%가 노인자원봉사자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 일반화시킨 것으로 의구심만 남을 뿐이다.

어쨌든 노인자원봉사가 “노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자는 크게 3가지 영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에 미국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들어 접목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노인들을 자원봉사활동의 현장으로 유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다른 나라 노인에 비해 현저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행복과 기쁨의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어 여가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대빈곤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계형 여가활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발표자는 첫째 노인 유희인력의 미활용과 노인 자원봉사 영역 개발 필요, 둘째 노인의 여가 참여 의식 미약과 의식개혁의 필요, 셋째 사회적 지원의 미약과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구체적으로 모집에서부터 배치, 봉사자 교육 및 훈련, 관리, 보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운영기술과 예산지원 등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첨언한다면 첫째, 노인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도록 지속적 관심과 소그룹 활동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어느 계층보다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의 자발적 행위로서 개인은 삶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얻게 되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함으로써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즉 보상은 노인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계속성을 보장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폭을 넓혀 노인 스스로가 “삶의 질”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공공근로형 일자리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인의 전문인력 활동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형 자원봉사활동 창출의 두 측면에서 유급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 할 것을 제의한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노인의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거나 교통비와 식비 정도를 지불해 주는 유급자원봉사(partially paid volunteer)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무보수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적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한번 시작된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보상을 받고 일하는 반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노인들이 자원봉사 체계를 위해 정부부처별 자원봉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노인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력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간 공동체 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제도가 하루빨리 강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정토론 4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토론

김 명 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자원봉사운동」에 대한 토론

김 명 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전문강사

1. 「노인과 자원봉사」(김동배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한 의견

- 가. 발제자의 논문(총19쪽, A4용지, 참고문헌 포함) 내용 중 “4. 외국 노인의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인용,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의 의의나 영역, 활동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퇴직자나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나. “5.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에 잠재한 많은 노인 유희인력이나 퇴직자의 귀중한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과 영역 개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자원봉사활동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견

* 노인자원봉사는 우리의 사회현실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활동, 평가 등의 운영체제가 미흡한 편이다.

가. 노인 잠재인력(노인 및 퇴직자)의 활용 사례

(1) 일하고 싶은 노인(퇴직자 포함)은 많으나 일할 곳은 없다.

⇒ 개인의 특성, 능력을 고려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기회 요망

- * 단기간, 단편적 노인 인력 활용이 대부분이다.
-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에서는 대체로 젊은이를 선호한다.
- * 고령자 취업 박람회는 노인들에게는 하나의 전시효과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 * 복지센터나 구청 등의 취업상담은 행정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노인복지센터는 많으나 노인봉사센터는 없다.

⇒노인 및 퇴직자의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 요망

- * 현대 우리나라의 노인들(자원봉사 희망자)은 대체로 「봉사의 수혜자」가 아닌 「봉사의 제공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한다.
- *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에서의 노인자원봉사자는 종사자의 업무보조를 위한 「잡일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 *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감, 일하는 실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나. 사회적 지원체제와 운영 사례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는 대체로 특화사업이라기보다는 대동소이한 획일적인 운영방식으로 생각된다.

- * 노인대상 양적 회원확보와 의례적인 프로그램의 진행형태가 대부분이다.
- * 노인복지는 급식과 오락으로 일관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즉, 먹여주면 복지요, 참여하면 봉사다.

(2) 자원봉사센터 등 지원부서의 노인자원 봉사자에 대한 희망자수, 수요처의 필요 인원과 활동영역 등의 파악과 연계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상록자원봉사단, 일부 자원봉사 단체 등의 사례

(3)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데 대한 배려가 아쉽다.

- * 노인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
- *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교통비, 식대 등), 기타 공적인 혜택 등의 보상대책이 미흡하다.

다. 자원봉사 실천 사례

“새로운 인생-나의 제2인생, 배우며 봉사하며-”(김명제)

(1) 새로운 인생 준비[봉사활동 예비 단계] : 1999. 6 ~ 2000. 12

(가) 교직의 퇴임과 새로운 인생 설계

- ① 교직 생활 마감과 새로운 터전의 진입
- ② “새로운 인생” 설계의 주안점
 - * 목적 : 「나」와 사회의 보람
 - * 내용 : 일거리 창출과 봉사활동

(나) 봉사활동 예행연습(1999. 6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 이후)

- ① 남에게 베풀고 사는 길 선택 : “봉사는 무료, 할 일이 많을 것이다.
- ② 분당 푸른마을 동대표 활동 (1999. 7. 1-2004. 현재)
- ③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한 연수(1999. 11-계속 활동)

(2) 배우며 봉사하며[봉사활동의 실천단계] : 2001. 1 ~ 2004. 현재

(가) 연구 및 연수 활동

- ①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노인복지전문가 과정 이수 (2001.3.1-2002.1.18)
- ② 한국 시니어 연합 회원 가입(2001. 11) 및 연구 활동
- ③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자원봉사자 연수과정(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이수(2002. 5. 15-5. 17, 2003. 3. 27-3. 28, 2004. 3. 25)
- ④ 시니어 전문자원봉사지도자 과정(서울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이수 (2002. 6.27-7.25)
- 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연수과정((사)한국 청소년마을 경기지부) 이수 (2002.12.23-24)
- ⑥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교육과정(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수(2003.4.15-18)
- ⑦ 전문자원봉사자 교육과정(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이수(2003. 7.5)
- ⑧ 2003.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역자원 안내원 양성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위탁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이수(2003.7.9-9.5)
- ⑨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성남시자원봉사센터)이수(2003.9.16-19)
기타 2004. 문해교육 과정 지도자 연수 이수(경금단)(2004. 8.17-19)

(나) 사회단체 가입 회원 활동

- ①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회원 (2002. 11-)
- ② (사)한국시니어연합 회원 (2002. 4-)
- ③ 금빛평생교육봉사단(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2002. 5-)
- ④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전문 자원봉사단(교육부문)및 강사(2003. 7. 1-)
- ⑤ 상록자원봉사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3. 4-)
- ⑥ 다움카페 “나이테사랑” (사랑으로 봉사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회원(2003. 7-) 회원

(다) 자원봉사 활동

- ① 상담 자원봉사 활동
 - * 노인문제기초 및 일반상담(서울노인복지센터 종합상담실)(2001.8-)
 - * 소비자문제 상담(성남 YWCA 상담실)(2002. 7-)
- ② 강의 활동
 - * 노인문제관련 강의 : 일반교양, 치매 등의 건강문제, 노인교육,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센터 및 종교·사회단체의 노인대학)(2001. 11-)
 - * 청소년, 성인 한자지도(초, 중등, 주부, 노인) (자치구 문화정보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부서)(2002. 6-)
 - * 자원봉사활동 순회 교육(초, 중, 고교 학생대상)(2003. 9-)
 - * 자원봉사실천사례 특강(퇴직예정 및 퇴직 공무원 대상-교육기관)(2003. 4-)
- ③ 현장 방문 활동 및 후원
 - * 치매요양원 방문 및 후원 활동(2001. 4-)
 - * 무의탁노인, 양로원 방문 활동(2001. 4-)
 - * 교회에서의 봉사 및 후원활동(2000. 1- 수시)

(라) 봉사활동과 「나」의 변화

- ① 생활 신조의 변화 : 「나」 중심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 ② 생활 방식·태도의 변화 : 일상생활의 즐거움보다 봉사의 기쁨으로 3S생활방식
 - * 체력단련(Sports)(體)
 - * 연구활동(Study)(知)
 - * 봉사활동(Service)(德)
- ⇒ * 즐겁고 신명나는 시니어
 - * 부부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
- ⇒ 사회와 청소년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멋진 시니어가 되자!

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시, 도)설치 운영

(1) 목적 :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센터 운영

- ① 소외계층의 노인문제 해소
- ② 잠재적 인적자원 활용
- ③ 경제력 증강에 기여

(2) 기대 효과

- 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 ② “저비용, 고효율, 고행복”의 지름길
- ③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하는 실버시대 구축

(3) 설치 내용

- ① 노인자원봉사의 홍보, 교육·연수
 - * 홍보전략, 모집 계획(매스컴, 기존 노인단체 등)
 - * 참여 계획 수립(활동영역, 인원, 신청서 작성 등)
 - *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 * 노인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
- ②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제공
 - * 노인자원봉사자의 자주성, 창의성 중시
 - * 참여노인들의 흥미, 관심, 의미 있는 경험활동 중심
 - * 노인자원봉사자의 다양성 고려(활동성, 학력, 건강, 전문성, 대상 등)
- ③ 노인자원봉사자의 소속감, 감사와 인정, 보상계획 수립
 - * 센터 직원의 단순보조역이 아닌 개성적 자아실현의 기회 부여
 - * 자원봉사 사례발표와 홍보매체를 통한 소개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제도

- * 지역 내 기업체/사업체와의 자매결연
- * 다양한 모임에의 초대
- * 다양한 규모의 노인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 * 최소한의 활동경비 지급
- * 지역유지와의 만남 추진
- ④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확립
 - * 노인자원봉사 상해제도 도입
 - * 노후 보상·저축제도(예: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 *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 실시

(4) 조직 및 구성원

- ① 조직
 - * 각 시, 도에 본부-산하 각 구, 읍, 면에 지소 설치
- ② 구성원
 - * 업무추진 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노인자원봉사자(유료)로 구성함

나. 「노인전문자원봉사팀」(기존 시, 도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 (1) 각 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에 「노인전문자원봉사팀」을 설치 운영
-산하 각 구, 읍, 면에는 「노인전문자원봉사 상담실」설치 운영
- (2) 역할 업무 :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추진하되 노인대상 업무 전담
- (3)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은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에 준함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275-20-085456 / 제일은행 예금주 :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취 선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4. 신청인 (서명)					



제44회 정기포럼 자료집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 운동

발행일 : 2004. 12.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o@hanmail.net
